



# 사료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이루어져야

## 1. 생산 및 가격 동향

한·미 FTA 타결과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등으로 인해 당초 사료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가축사육 마릿수의 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도 7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9,320천톤으로서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경우 금년도 사료생산량은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1,580만톤 최고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축종별 생산동향을 보면 비육우용 사료가 전년 대비 8.7%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돼지사료가 5.3%, 양계용이 4.3%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낙농용 사료는 5.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는 하나 기타용사료가 전년 대비 13.6%

나 증가하였는데 예년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기타사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던 것이 개사료였던 반면에 금년의 경우는 오리사료 생산량이 급증해 기타사료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전체 기타사료의 높은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97년도 외환위기 시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사료원료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과 3달 사이에 2번에 걸쳐 30%이상 인상과 무려 9번에 걸쳐 제지리를 찾은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등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06년 3/4분기 이후 국제사료원료가격이 급등세로 전환되면서 사료가격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IMF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06년 이후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가격변동은 표2에서와 같

표 1. 전년대비 사료생산량(7월 누계)

(단위 : 천톤)

	2007 (A)	2006 (B)	대 비 (%. A/B)
양 계 용	2,649	2,538	104.3
양 돈 용	3,045	2,891	105.3
낙 농 용	848	896	94.7
비육우용	2,189	3,013	108.7
기 타	589	519	113.6
계	9,320	8,858	105.2



**홍순찬**  
(사)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부장

다. 06년 1/4분기 중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농가와 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육우용 사료에 한하여 평균 4.0%를 인하한데 이어, 2/4

분기 중에는 원료가격 및 환율의 안정을 사유로 모든 사료에 대해 평균 2% 내외의 가격인하가 있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4/4분

표 2. 한·일 배합사료가격 변동내용

	한 국	일 본	
		젠노 표시 변동폭	가격보전후 변동폭
06. 1/4 분기	4% 인하(비육우용)	3% 인상	0.2% 인상
2/4	2% 인하		
3/4	-	1.5% 인하	
4/4	4~6% 인상	5% 인상	0.3% 인상
06. 1/4 분기	4~6% 인상	16.5% 인상	1.6% 인상
2/4	6~7% 인상	11.0% 인상	4.7% 인상
3/4		4.5% 인상	

표 3. 주요원료 가격동향

(단위 : 천톤)

	2006.8(A)	2006.12(B)	2007.8(C)	증감율(%)	
				C/A	C/B
옥수수	163.4	210.3	238.3	145.8	113.3
소맥	172.0	205.0	313.3	182.1	152.8
대두박	248.9	282.1	352.2	141.5	124.8
채종박	139.9	156.7	190.0	135.8	121.2
팜 박	76.5	116.5	143.9	188.1	123.5
야자박	129.0	158.5	175.5	136.0	110.7
소맥피	127.0	150.5	184.0	144.8	122.2



기 중에는 전축종 사료에 대해 4~6%의 가격인상이 있었는데 이의 주요원인은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급등에 있다. 06년 4/4분기 이후 07년 2/4분기 까지 내리 3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약 20%의 가격인상이 있었다. 이 같은 사료가격인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 2. 사료원료 고가(高價)시대의 도래

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오던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06년 3/4분기 이후 급격한 상승세로 반전되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몇 년의 주기로 등락을 거듭하던 예전의 패턴과는 대별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향후 농산물 국제거래의 가격대(帶)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시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현재 국내 배합 사료업체는 옥수수 등 곡류원료의 경우는 12월 사용물량을, 대두박 등 부원료는 10~11월 사용물량을 기히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운송기간 등을 고려해 선(先)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업계의 고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매할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 ■ 옥수수 등 사료용곡물의 타용도(에탄올) 이용증가

국제적인 사료원료의 가격상승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과거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활용되던 옥수수 등의 농산물이 에탄올 제조용으로의 신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있다.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가격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향후 옥수수 생산량의 30% 이상이 에탄올 제조용으로 사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에탄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 문제는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상당기간 고곡가(高穀價) 시대를 예견케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농업(옥수수 산업)의 침체기(옥수수 생산농가의 채산성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가격이 배럴당 40~45\$ 정도면 에탄올연료가 경제적이라는 판단 아래 에탄올 증산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외에도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 역시 에탄올 제조용도의 옥수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사료용도의 옥수수 수출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표 4. 미국 옥수수의 에탄올제조용도 수요현황

(단위 : 백만톤)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총생산량	299.9	282.3	267.6	331.6
총수요량(A)	224.7	232.1	235.6	267.7
에탄올용(B)	33.6	40.7	54.6	86.3
B/A(%)	14.9	17.5	22.9	32.2



■ 중국의 옥수수 수출제한 조치

다음은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중국의 옥수수 수출제한조치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점이다. 과거 중국이 사료용 옥수수 등을 수출하였던 것은 옥수수 생산지대인 길림성을 비롯한 동북3성에서 중국의 남쪽지역까지 옥수수를 운반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과다발생으로 남쪽지역에서는 오히려 수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가까운 한국 등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중국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사료원료 수입시장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옥수수의 가격견제 역할을 해오던 중국의 옥수수 수출제한은 미국산 주도의 옥수수 국제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 동남아 경제성장에 따른 열대 식물성박류 가격상승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가격 상승요인이 위와 같다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야자박 등 열대 식물성박류의 경우는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급조차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사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同 원료들을 수입·사용함으로써 사료가격 안정을 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요수출국인 동남아 국가들의 가공기술의 발달로 식물성기름을 짜고 남

은 단순부산물 생산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으로 전환 생산되고 있다. 또한 그나마 생산되는 사료원료들도 자국의 축산업발전으로 자국내에서 사료용으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호주의 극심한 기쁨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오히려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불균형도 작용하고 있다.

■ 해상운임(Ocean Freight)과 환율의 상승

위의 요인들이 원료수급 사정에 따른 것인 반면 원료를 수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에 못지않게 국제 선박운임의 변화 역시 사료생산 비용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료원료의 경우 해상운임이 포함된 국내항 도착도 기준가격(C&F)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있어 세계적인 선박운임료 상승은 사료의 생산비용 증가 요인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제 해상운임상승의 주요원인은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세계의 원자재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선박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올림픽 개최준비에 따른 건설자재 등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운임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호주, 인도 등 세계 주요항구의 체선현상이 당초보다 장기화되면서 해상운임의 강세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목할 내용은 지난 8.10일

표 5. 해상운임 동향

		2006. 8(A)	2006. 12(B)	2007. 8(C)	증감율(%)	
					C/A	C/B
해상운임 (\$/톤)	PNW	37.2	39.8	56.0	150.5	140.7
	GULF	44.6	52.6	83.5	187.2	158.7



현재 해상운임 등락의 지표가 되는 BDI(건화물 선 운임지수)가 그 동안마의 벽으로 일컬어지던 7천 포인트를 넘어 7,011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일정기간 해상운임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료 및 선임가격 상승과 아울러 최근 들어 사료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환율이다. 사실 지난 06년 3/4분기 이후 국제원료가격상승에 비해 환율은 어느 정도 하양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당 920원 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최근 950원대에 접근하는 급격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국내 사료가격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료의 실질 수입의존도가 95%에 이르고 원가구성중 원재료비 비중이 80%에 이르는 사료산업 구조를 감안하는 경우 환율의 상승은 곧 사료생산의 증가로 연결되어 있다.

### 3. 원료의 경제적 ·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모색해야 할 터

국내 사료업계 특히, 사료협회 소속 업체들은 지난 십수년간 중단되었던 옥수수를 공동구매하는 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원료가격 급등에 대응할 만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옥수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상승폭이 적은 대체원료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곡물거래는 몇몇 선진 국가들과 특정 곡물메이저들에 의한 독과점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구조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원료수입국인 우리

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원료확보 시스템을 고수하는 한 이들 국가와 메이저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원료의 경제적 · 안정적 확보를 포함해 우리나라 축산정책에 있어 그 맨 앞에 사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료의 경쟁력 확보 없이는 축산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사료산업의 문제는 곧 축산의 문제

농업의 개방화가 시작된 95년도 UR이후 DDA, FTA 등을 거치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정책이 입안되고 또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축종별 경쟁력제고를 위한 많은 대책들 맨 앞줄에는 사료비 절감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착 사료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사료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줄 만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산업 내부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아울러 우리 축산업 내부적으로도 사료산업을 별개의 산업으로 애써 외면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료산업과 축산업을 별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료원료의 도과점화 심화 등 세계적인 주변 환경의 변화로 볼 때 사료산업 내부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제 사료산업의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배려와 병행하여 축산업계 전체가 사료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 ■ 사료원료의 경제적 ·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전술한 바와 같이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에너지지원(에탄올 등) 전환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시장에 있어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원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사료산업과 축산업은 사료원료의 경제적이고 안정적 확보가 곧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곡물 메이저를 통한 물량 확보 방법과 같은 방식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축산업 및 사료산업은 국제 원료 가격 급변 등 외부요인에 의해 종속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원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서 석유 등 광물 자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의 해외 사료자원 확보를 위한 개발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선 과거와 같은 민간개념의 단독투자보다는 정부의 금융 등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자의 실질적 효과거양을 위해서는 농지 확보를 통한 사료원료의 생산과 병행하여 투자 상대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출항구의 엘리베이터 시설투자, 유통거점 확보 등 투자·개발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 외부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적 장치 필요

금번의 국제 사료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과 같이 원료 가격 및 환율의 등락에 따른 외부적 충격이 국내 사료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사료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료 가격 안정기금 제도과 같은 외부충격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투자 개발과 연계하여 수요량의 일정량의 사료원료를 비축하는 사료원료의 비축 개념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들 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원료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기간인 06년 3/4분기 이후 4번에 걸쳐 40% 이상의 가격을 인상·告示하였지만 양축농가가 실질 부담한 인상율은 불과 6%내외에 불과하다.

#### ■ 사료 생산비용 저감을 위한 자구노력과 정책지원의 시너지 효과 기대

사료 생산비용의 저감을 위해서는 사료기업의 자체적인 가격안정 노력과 정부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료기업은 세계적인 사료원료 시장의 독과점화 상황에서 구매교섭력을 강화키 위한 공동구매의 확대와 아울러 옥수수과 대두박으로 대변되는 사용원료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DDGS(에탄올 생산 부산물), 완두콩 등 다양한 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등 현재와 같은 소수의 수입국을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사료기업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정부의 관련 시책도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료원료 구매자금의 대폭적인 증액(1,000억원 이상)과 금리의 인하 지원이다. 동 자금은 96년 600억원까지 지원되었던 규모가 07년 현재 523억원으로 축소 운용되고 있다. 이는 그간 산업규모의 확대, 원료 가격의 급등으로 경영비용이 2배 이상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05년도 정



부가 적극추진하고 있는 사료공장 HACCP인증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사료의 안전성확보는 물론 관련제도의 조기정착과 시책을 위해서라도 증액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료용근채류 중 일부품목과 수입콩(대두), 타피오카 칩 등과 같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적극적이고도 시급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원료의 다양화를 통한 사료가격 안정차원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축산물이 수입되고 관세의 완전철폐마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히 부적절한 규제로 판단된다.

다음은 사료제조업체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지원정책이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동 공제율의 경우 지난 77년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당시에는 10/110(9.09%)로 완전 공제가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공제율 하향조정으로 현재는 2/102(1.96%)가 적용되고 있다. 사료기업에 대한 공제율 하향조정은 DDA/FTA 체결 등 정부의 개방화 정책시행으로 인한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그 당위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정부의 빠른 시일내 실현가능한 정책수단 중 기대효과가 가장 큰 정책개선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교역 상대국과의 마찰우려가 없고 세계 무역질서에 부응하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축산업 지원 정책수단인 것이다. 

